

## 제 1 교시

## 국어 영역

홀수형

## [1~4] 서양철학 : 로티의 자유주의 해석학 (56p)

서양 철학의 오랜 전통은 진리를 실재를 정확히 반영하는 거울에 비유하며, 언어와 세계 사이의 투명한 대응 관계를 탐구해 왔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의 지식 체계가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토대 위에 세워져 있다는 믿음, 즉 토대주의를 전제한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언어와 지식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이루어졌고, 이러한 토대주의적 사유에 균열을 일으키는 새로운 철학적 흐름이 등장하였다. 이 흐름의 중심에는 언어가 세계를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인간의 삶 속에서 사용되는 도구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요한 계기는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철학에서 마련되었다. 그는 단어의 의미가 지시하는 대상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용되는 구체적인 맥락, 즉 ‘언어 게임’ 속에서 결정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물’이라는 단어는 화학 실험실에서는 화학식  $H_2O$ 를 의미하지만, 사막을 헤매는 사람에게는 생존의 필수 요소를 의미하는 등 사용되는 ‘삶의 형식’에 따라 그 의미망이 달라진다. 이는 모든 상황에 통용되는 보편적이고 단일한 언어란 존재하지 않으며, 다양한 언어 게임들이 각자의 규칙에 따라 작동할 뿐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결국 언어는 실재를 완벽하게 재현하는 중립적 매체가 아니라, 특정 공동체의 필요와 목적에 따라 기능하는 다원적 도구들의 집합인 셈이다.

언어의 의미에 대한 비트겐슈타인의 통찰은 콰인의 전체론에 이르러 지식 체계 전반으로 확장되었다. 콰인은 논리 실증주의자들이 지식의 토대로 삼았던 분석 명제와 종합 명제의 엄격한 구분을 비판했다. 분석 명제는 ‘총각은 결혼하지 않은 남자다’처럼 정의에 의해 참이 되는 명제이며, 종합 명제는 경험적 관찰을 통해 참이 확인되는 명제이다. 콰인은 어떠한 명제도 독립된 상태에서 개별적으로 검증될 수는 없으며, 우리의 신념 체계 전체가 경험이라는 심판대 앞에 총체적으로 놓인다고 보았다. 그는 우리의 지식을 중심부와 주변부로 이루어진 ‘신념의 그물’에 비유했는데, 경험과 충돌하는 부분이 생겼을 때 우리는 그물의 어느 부분이든 수정하여 전체적인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는 절대적으로 확실한 지식의 토대는 없으며, 모든 지식은 원리적으로 수정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비트겐슈타인과 콰인의 반(反)토대주의적 사유를 계승한 로티는 ㉠철학의 목표를 재설정할 것을 제안한다. 그는 ㉡객관적 진리나 보편적 합리성과 같은 형이상학적 토대를 추구하는 대신, 특정 역사적 공동체 내에서의 ‘연대’를 강조했다. 로티에게 철학의 과제는 세계의 본질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자유주의 사회의 가치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고 확장하는 문화적 대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그의 ‘자유주의 해석학’은 텍스트나 사상을 해석할 때 그것의 본래 의미를 찾는 데

집착하기보다, 현재 우리의 목적에 유용하도록 새롭게 활용하는 실용주의적 태도를 취한다. 이 관점에서 지식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상상력의 산물이자 사회적 합의의 과정에서 창조되는 것이다.

## 1.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콰인은 분석 명제와 종합 명제의 엄격한 구분을 비판했다.
- ② 서양 철학의 오랜 전통은 진리를 실재를 정확히 반영하는 거울에 비유해 왔다.
- ③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단어의 의미는 사용되는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결정된다.
- ④ 콰인은 경험과 충돌이 생길 때 신념의 그물 중심부는 수정될 수 없다고 보았다.
- ⑤ 로티는 철학의 과제를 특정 공동체 내에서의 ‘연대’를 강조하는 것으로 보았다.

## 2. ‘로티’의 관점을 바탕으로 할 때, 지문의 ㉢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진리에 대한 판단은 개별 명제가 아닌 신념 체계 전체를 통해 이루어진다.
- ② 진리의 의미는 그것이 사용되는 특정 언어 게임의 규칙에 따라 달라진다.
- ③ 진리는 자유주의 사회의 가치를 다른 공동체에 보편적으로 적용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 ④ 진리는 언어를 통해 세계를 투명하게 반영하지만, 그 해석은 공동체의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
- ⑤ 진리는 세계의 본질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공동체의 연대 속에서 창조되는 것이다.

3. 윗글과 〈보기〉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참된 실재는 감각으로 경험하는 개별 사물들의 세계가 아니라, 이성으로만 파악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불변하는 ‘이데아’의 세계에 존재한다.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아름다운 것들’은 모두 ‘아름다움 자체’라는 이데아의 불완전한 모방에 불과하다. 따라서 진정한 삶이란 변화하는 현상 세계에 대한 의견이 아니라, 영원한 이데아에 대한 객관적 지식을 의미한다. 철학자의 임무는 이성을 통해 현상의 너머에 있는 이데아를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의 삶과 공동체를 위한 절대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 ① 윗글의 로티와 달리, 〈보기〉는 철학의 임무를 공동체를 위한 절대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는군.
- ② 윗글의 비트겐슈타인과 달리, 〈보기〉는 개별 사물들이 보편적인 실재를 불완전하게 반영한다고 보는군.
- ③ 윗글의 로티와 〈보기〉는 모두 지식이 특정 공동체의 필요를 넘어선 보편적 토대를 추구해야 한다고 보는군.
- ④ 윗글의 콰인과 달리, 〈보기〉는 변화하는 현상 세계에 대한 의견과 구분되는 객관적 지식이 존재한다고 보는군.
- ⑤ 윗글의 로티는 지식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창조된다고 보는 반면, 〈보기〉는 참된 실재가 인간의 인식과 무관하게 존재한다고 보는군.

4. 윗글을 참고할 때, 로티가 ㉠을 제안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언어가 실재를 완벽하게 재현할 수 없다는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 ② 다양한 언어 게임들이 각자의 규칙에 따라 작동하므로 이를 통합할 새로운 규칙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③ 신념의 그물에서 경험과 충돌하지 않는 중심부의 지식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 ④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토대 위에서 지식을 쌓을 수 있다는 믿음이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 ⑤ 특정 역사적 공동체 내에서의 연대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철학의 새로운 토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5~8] 서양철학 : 블루멘베르크의 은유학, 절대적 은유 (60p)

은유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관념을 다른 관념을 통해 표현하는 수사적 장치로 이해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은유는 본래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에 불과하며, 논리적이고 명료한 개념적 언어에 비해 부차적인 지위를 차지한다. 철학의 역사에서 은유는 종종 진리를 가리는 장식적이거나 불완전한 표현 방식으로 여겨졌고, 엄밀한 개념적 사유가 정립되면 사라져야 할 대상으로 간주되었다. 즉, 은유의 역할은 개념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공백을 임시로 메우는 것에 국한된다는 것이 전통적인 시각이었다.

이러한 전통적 관점에 대해 독일의 철학자 한스 블루멘베르크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며 ‘은유학’이라는 새로운 탐구 영역을 제시한다. 그는 은유가 단순히 개념을 대체하는 보조적 수단이 아니라, 개념적 사유가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서 세계에 대한 근원적 이해의 틀을 제공한다고 보았다. 인간은 설명할 수 없는 거대하고 위협적인 현실, 즉 ‘세계의 절대주의’ 앞에서 방향성을 상실하고 불안을 느끼는데, ㉠개념적 언어는 이러한 실존적 물음에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한다. 블루멘베르크에 따르면, 바로 이 지점에서 은유가 사유의 기반을 형성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은유학은 이러한 은유의 기능을 역사적으로 추적하고 그 의미를 밝히는 학문이다.

블루멘베르크는 이러한 은유의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 ‘㉡절대적 은유’라는 핵심 개념을 제시한다. 절대적 은유는 그 의미를 온전히 보존한 채 개념적 언어로 환원될 수 없는 은유를 지칭한다. 가령 ‘나의 마음은 호수’와 같은 수사적 은유는 ‘내 마음은 평온하다’와 같이 개념적 설명으로 대체될 수 있지만, ‘진리는 빛이다’ 또는 ‘세계는 하나의 책이다’와 같은 절대적 은유는 그렇지 않다. 이들 은유는 진리나 세계라는 추상적이고 파악하기 어려운 대상에 대한 인간의 근본적인 태도와 이해 방식을 구조화한다. 절대적 은유는 논증을 통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세계관을 배경으로 제시함으로써 인간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절대적 은유는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변천의 과정을 겪으며, 특정 시대의 사유 체계를 형성하는 토대로 작용한다. 가령 신이 저술한 ‘책’으로 여겨지던 중세의 세계상은 근대에 이르러 정교한 ‘기계’라는 은유로 대체되었다. 세계를 책으로 이해할 때 인간은 신의 의도를 읽어내는 해석자의 역할을 부여받지만, 세계를 기계로 이해할 때 인간은 그 작동 원리를 분석하고 통제할 수 있는 주체로 나서게 된다. 이처럼 절대적 은유의 변화는 단순히 표현 방식의 변화를 넘어, 한 시대의 세계관과 인간의 자기 이해 방식에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났음을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 은유는 개념의 그림자가 아니라, 오히려 개념적 사유가 펼쳐지는 지평을 미리 구성하는 힘을 지니는 셈이다.

정답 및 해설

| 문항<br>번호 | 정답 | 문항<br>번호 | 정답 | 문항<br>번호 | 정답 | 문항<br>번호 | 정답 |
|----------|----|----------|----|----------|----|----------|----|
| 1        | ④  | 2        | ⑤  | 3        | ③  | 4        | ④  |
| 5        | ①  | 6        | ④  | 7        | ⑤  | 8        | ④  |
| 9        | ⑤  | 10       | ⑤  | 11       | ⑤  | 12       | ③  |
| 13       | ④  | 14       | ⑤  | 15       | ③  | 16       | ⑤  |
| 17       | ②  | 18       | ③  | 19       | ⑤  | 20       | ④  |

1. ④  
[정답해설]  
이 글은 진리를 객관적 실재의 반영으로 보는 토대주의적 관점에서 벗어나, 언어와 지식을 공동체의 필요와 목적에 따른 도구로 보는 반토대주의적 철학의 흐름을 소개하고 있다. 3문단에 따르면 콰인은 우리의 지식을 중심부와 주변부로 이루어진 ‘신념의 그물’에 비유하며, 경험과 충돌하는 부분이 생겼을 때 우리는 그물의 어느 부분이든 수정하여 전체적인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중심부와 주변부의 구분 없이 모든 지식은 원리적으로 수정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경험과 충돌 시 신념의 그물 중심부는 수정될 수 없다는 ④의 진술은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오답피하기]  
① 3문단에서 콰인은 논리 실증주의자들이 지식의 토대로 삼았던 분석 명제와 종합 명제의 엄격한 구분을 비판했다고 직접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② 1문단에서 서양 철학의 오랜 전통은 진리를 실재를 정확히 반영하는 거울에 비유하며 언어와 세계의 투명한 대응 관계를 탐구해 왔다고 언급하고 있다.  
③ 2문단에서 후기 비트겐슈타인은 단어의 의미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용되는 구체적인 맥락, 즉 ‘언어 게임’ 속에서 결정된다고 주장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4문단에서 로티는 철학의 과제가 세계의 본질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역사적 공동체 내에서의 ‘연대’를 강조하고 문화적 대화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2. ⑤  
[정답해설]  
⑤ 로티는 철학의 과제가 세계의 본질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내의 ‘연대’를 강화하고 문화적 대화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지문에서 로티의 관점은 ‘지식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상상력의 산

물이자 사회적 합의의 과정에서 창조되는 것’으로 설명된다. 따라서 객관적 진리의 발견을 부정하고, 공동체의 연대를 위한 사회적 창조물로서의 진리를 주장하는 이 선지는 로티의 관점에서 ㉠을 가장 적절하게 반박하는 내용이다.

[오답피하기]  
① 이는 콰인의 전체론적 관점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지문에 따르면 콰인은 우리의 신념 체계 전체가 총체적으로 경험의 심판을 받는다고 보았으므로, 이는 로티가 계승한 사상이기는 하나 그의 핵심 주장인 ‘연대’와 ‘창조’를 직접적으로 반영하지는 않는다.  
② 이는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게임’ 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지문에서 단어의 의미가 사용되는 맥락에 따라 결정된다는 비트겐슈타인의 주장을 소개하고 있으나, 이는 로티 사상의 철학적 계보를 설명하는 부분일 뿐 로티가 제안한 철학의 새로운 목표를 직접적으로 나타내지는 않는다.  
③ 이는 로티의 주장을 왜곡한 것이다. 로티는 ‘우리가 속한 자유주의 사회의 가치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고 확장하는’ 것을 강조했을 뿐, 그 가치를 다른 공동체에 보편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그의 관점은 보편성 추구와는 거리가 멀다.  
④ 이는 토대주의적 관점과 반토대주의적 관점을 모순적으로 결합한 진술이다. 로티는 언어가 세계를 투명하게 반영하는 ‘거울’이라는 전통적 관점을 비판적으로 계승한 철학자이므로, ‘언어를 통해 세계를 투명하게 반영한다’는 전제 자체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3. ③  
[정답해설]  
③ 윗글의 로티는 객관적 진리나 보편적 합리성과 같은 형이상학적 토대를 추구하는 것을 비판하며, 특정 역사적 공동체 내에서의 ‘연대’와 현재 우리의 목적에 유용한 실용주의적 태도를 강조한다. 이는 지식이 보편적 토대를 추구하기보다 특정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 창조된다는 관점이다. 반면 <보기>는 이성을 통해 보편적이고 불변하는 ‘이데아’를 인식하고 이를 절대적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로티가 지식의 보편적 토대를 추구한다고 보는 것은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오답피하기]  
① 윗글에서 로티는 철학의 과제를 우리가 속한 자유주의 사회의 가치를 풍부하게 만드는 ‘문화적 대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본다. 반면 <보기>는 철학자의 임무를 이데아를 바탕으로 공동체를 위한 ‘절대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두 관점은 철학의 임무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한다.  
② 윗글에서 비트겐슈타인은 단어의 의미가 사용되는 구체적